

2024년 3월 21일 KIWOOM 이슈분석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채권전략 안예하 yhahn@kiwoom.com | 경제/FX 김유미 helloy@kiwoom.com

| 주식전략 한지영 hedge0301t@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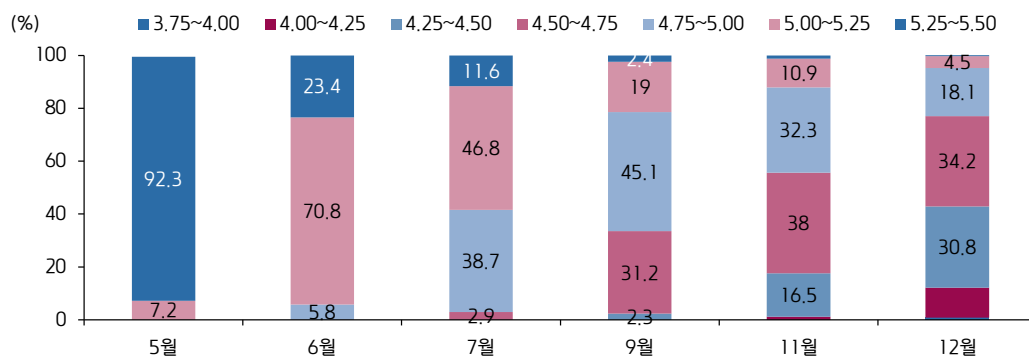
키움증권

FOMC 와 금융시장 영향

Check Point

- **FOMC review:** 미 연준, 정책금리 5.25~5.50%로 동결. 지난 12 월과 같이 연내 세차례 인하 기대를 점도표를 통해 유지하면서 6 월부터 세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당사의 기존 전망도 유지. 성장률과 근원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나, 강한 고용만으로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감안, 물가 둔화 확인하며 점진적 금리 인하 예상.
- **채권시장 영향:** 연내 세차례 인하 가능성을 확인한만큼 향후 금리는 점진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이번 3 월 FOMC 를 기점으로 금리 상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최근 인플레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연내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일부 약화되기도 했으나, 금리 상승시 매수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번 3 월 FOMC 를 통해 확인.
- **외환시장 영향:** 6 월 금리 인하 전망 유효. 금리 인하 전후로 달러는 완만한 약세 흐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미 대선에 있는 4 분기는 소폭 반등 예상. 달러/원 환율도 달러에 연동해 1,200 원대 후반으로 하락한 이후 하반기 후반 다시 오르는 U 자형 경로를 전망.
- **주식시장 영향:** 3 월 FOMC 는 증시 친화적인 결과였음. 4 월 중 3 월 CPI 전후로 인플레이션 노이즈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겠으나, “6 월 금리인하 유효 + 1 분기 실적시즌 기대감+ 외국인 바이코리야”이라는 조합이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시키면서 반도체와 저 PBR 주간 긍정적인 순환매 장세를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

CME Fedwatch에 반영된 미 연준 정책금리 전망



자료: CME Fedwatch,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3/21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6월 인하, 완만한 하락세 예상

Fixed Income Strategist 안예하
yhahn@kiwoom.com

FOMC, 연내 인하 의견 변경 없어

미 연준은 FOMC 를 통해 정책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지난달과 성명문 문구를 거의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기존의 뷰를 유지하는 스탠스를 보였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며, 인플레이션도 다소 높지만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 월 FOMC 성명문에 추가한 문구 또한 유지했다. 물가가 2%에 근접해간다는 대단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금리 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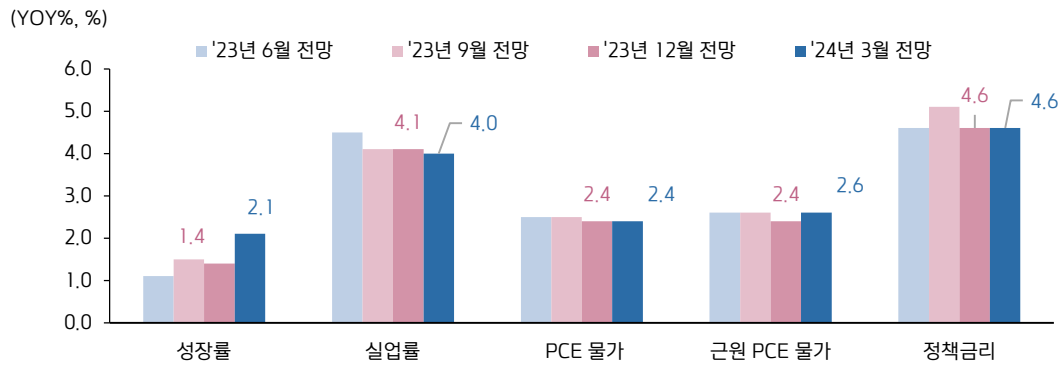
한편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일부 변화를 주었다. 올해 성장률을 기존 1.4% 전망에서 2.0%로 큰 폭 상향 조정했으며, 이와 함께 실업률은 소폭 하향했고 근원 물가는 2.6%로 기존의 2.4%에서 상향 조정했다. 헤드라인 물가 전망치는 기존 2.4%를 유지했다.

연내 인하 전망을 유지하는지가 이번 FOMC 의 관건이었던 만큼 점도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미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 중간값은 4.6%로 지난 12 월 FOMC 의 '연내 세차례 인하' 뷰를 그대로 유지했다. 2025 년과 2026 년에 대한 금리 전망치는 각각 0.3%p, 0.2%p 씩 상향 조정해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 시사했다. 장기 금리 또한 2.5%에서 2.6%로 소폭 상향 조정되면서 중립금리가 소폭 높아지며 장기간 고물가 속 높은 정책금리 수준이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던 가운데, 다소 비둘기적이었다고 해석한다. 특히 지난 1~2 월 물가가 높았던 것은 계절적 영향이 강했다고 지적했으며, 강한 고용만으로 금리를 동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물가 둔화 기조를 확인한다면 고용시장이 강하더라도 금리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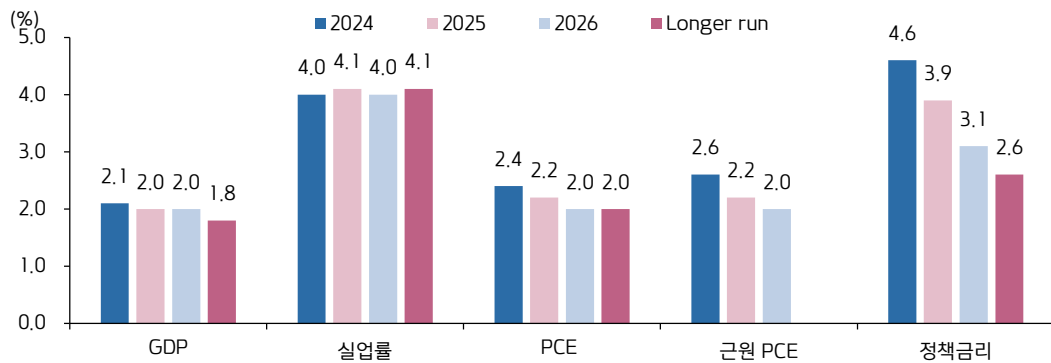
금융시장은 미 연준이 연내 세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였고, 채권시장 또한 연내 인하 기대 반영하며 단기 구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달러는 연내 인하로 약세를 보였다. CME Fedwatch 상 미 연준의 6월 인하 가능성은 76% 수준으로 전일의 50% 수준에서 크게 높아졌다.

미 연준 경제 전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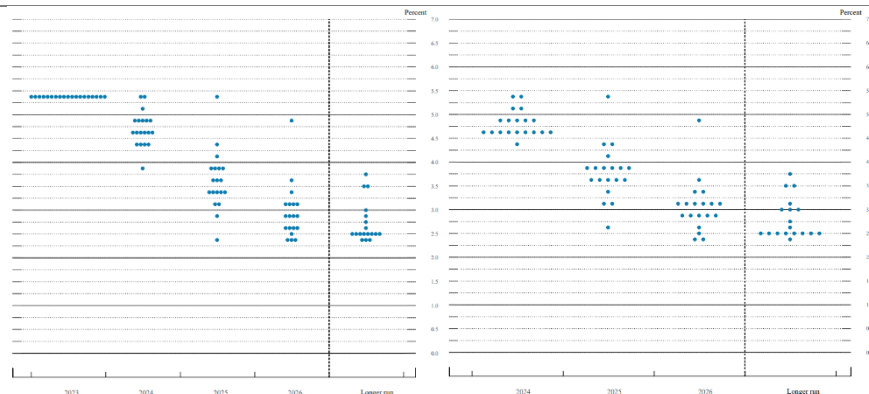
자료: 미 연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3월에 전망한 향후 경기 흐름



자료: 미 연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 연준 금리 전망 점도표(좌: 2023년 12월 / 우: 2024년 3월)



자료: 미 연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점진적 금리 인하 기대 반영하며, 완만한 금리 하락 예상

이와 같은 점을 토대로 볼 때 당사는 올해 6월부터 세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한다. 경기 연착륙을 목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 실질금리를 낮춰 견조한 경기 흐름을 장기화시킨다는 관점에서의 금리 인하인만큼 분기당 1 회 수준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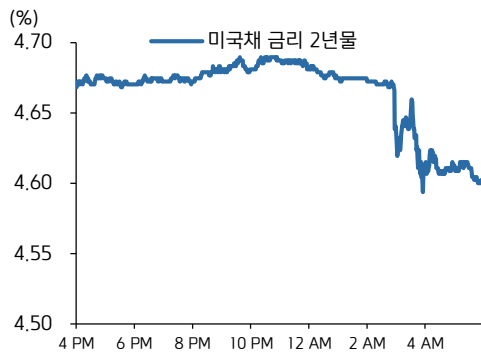
점진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배경은 그만큼 물가의 둔화를 빠르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지난 1~2 월에서 확인했듯이 물가는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6 월에 첫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물가 둔화 흐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매 회의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보다는 분기마다 단행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연내 세차례 인하 가능성을 확인한만큼 향후 금리는 점진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미국채 10 년물은 예상보다 높은 물가 영향으로 심리적 상단인 4.3% 내외에서 등락을 보여왔으나, 이번 3 월 FOMC 를 기점으로 금리 상단이 좀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인플레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연내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일부 약화되기도 했으나, 금리 상승시 매수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번 3 월 FOMC 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아직까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는만큼 시장금리 하락의 강도가 강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물가 둔화를 확인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확신으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공급측 요인에 대한 물가 경계감도 재차 높아진 상황이며, 주거비를 비롯한 서비스물가의 둔화의 하락세 또한 더딘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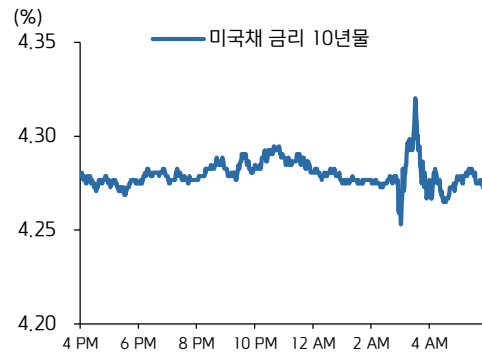
이를 고려하면 금리는 점진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지표를 전후로 경계감이 높아질 때마다 매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1~2 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았음에도 미 연준 위원들의 연내 인하 기대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세차례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들이 많아진만큼 세차례 인하 기대가 쉽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장기채 매수 전략은 유효하며, 반등시 포지션 확대 또한 필요한 전략이다.

일중 미국채 금리 2년물 변화(분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일중 미국채 금리 10년물 변화(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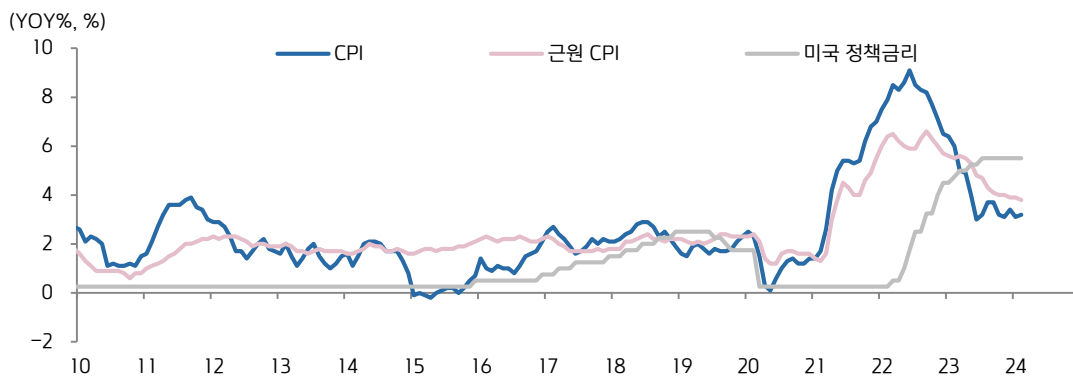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 연준 정책금리와 미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물가와 미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6월 인하 전망, 완만한 달러 약세

Economist 김유미
hellomy@kiwoom.com

FOMC 금리 동결, 전망치 일부 수정,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 유지

3월 FOMC는 예상보다 비둘기적이었다. 정책금리는 5.25~5.50%에서 동결하며 시장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성명서도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면 지난 1월과 비교할 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으로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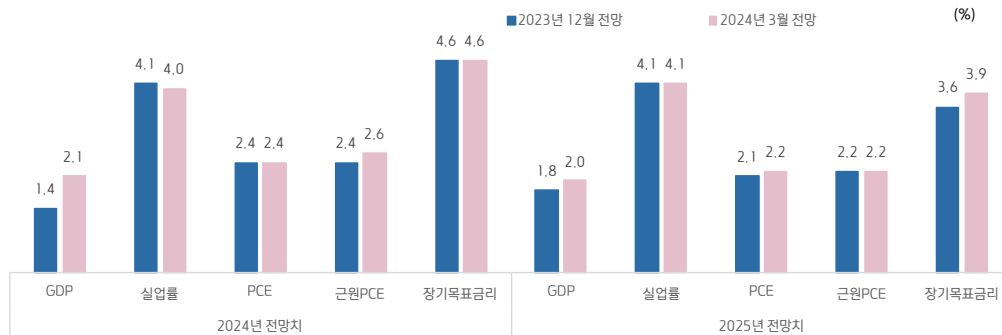
연준의 경제전망치에는 변화가 있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상향 조정하며 지난 해 12월보다 0.7%p 높였으며 실업률은 4.0%로 0.1%p 낮추며 경기 연착륙 전망을 강화하였다. 물가에 대해서는 PCE 물가는 2.4%로 유지하고 근원 PCE 물가는 2.6%로 0.2%p 높여 긍정적인 경기에 대한 시각을 수요 인플레이션에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장기 목표금리에 대해서는 4.6%로 종전 수준을 유지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뒷받침 해주었으며 이를 반영해 점도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연준의 2025년 전망치를 보면 경제성장률을 2.0%로 종전보다 0.2%p 높였으며 실업률도 4.1%로 유지하고 근원물가는 2.2%로 유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물가의 둔화세를 바탕으로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는 이어간다는 시각을 담고 있다. 이런 시각은 2025년 장기 목표금리에 반영되어 3.9%로 종전(3.6%)보다 높아졌다.

연준의 장기 목표금리를 보면 금리 인하는 올해와 내년 세 차례를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12월 2025년 4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시각에서 그 폭을 축소된 것으로 장기 목표금리가 종전 2.5%에서 2.6%로 상향 조정된 점을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강도가 과거와 비교할 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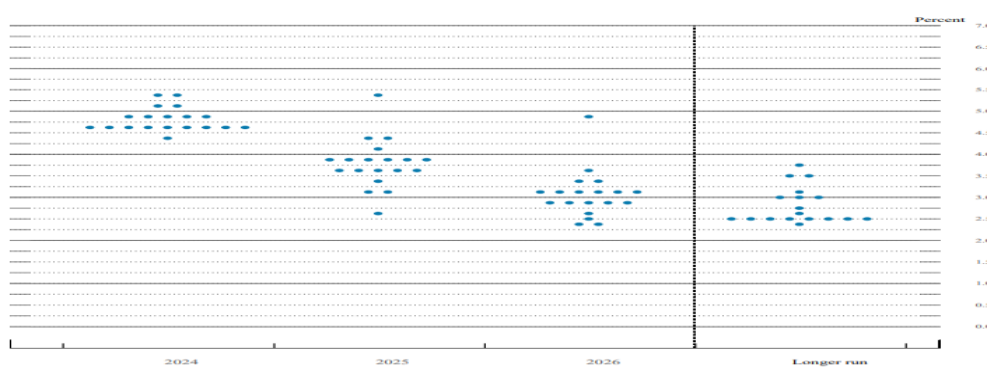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은 대체로 중립적이었지만 비둘기적인 측면에 가까워졌다고 보여진다.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였고, 인플레이션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하지만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시각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강력한 고용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를 연기할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내 수급이 점차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차대조표 관련해서는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밝히며 속도 조절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언급해 양적긴축 규모의 축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연준 경제 전망치 변화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3월 FOMC 연준 점도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 6월 인하 전망 유지

3월 FOMC는 6월 금리 인하 전망을 다시 강화시켰다. 시카고 FED 위치에 따르면 6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70.8%로 전일 55.6%보다 높아졌다. 또한, 회의 이후 미 달러와 국채금리가 하락하였고 뉴욕증시는 상승세를 보이며 통화 이완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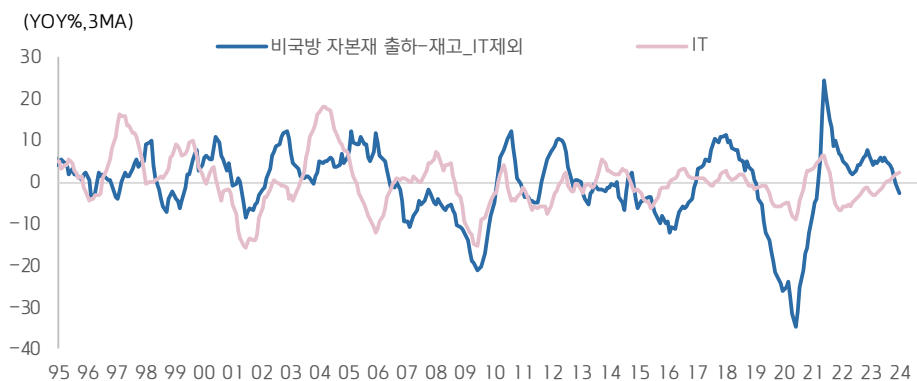
당사는 보험적 금리 인하 측면에서 올해 6월부터 정책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를 보면 연준의장의 통화정책 무게 중심이 인플레이션에서 경기에 좀더 맞춰진 모습이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물가가 점진적이지만 둔화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고금리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기 위축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와 이에 대한 명분을 갖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 보여진다.

미국의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하다. 다만, IT 부문을 제외하고 보면 투자 수요는 둔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파산건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일부 업종으로의 성장 쏠림이 약한 성장의 고리를 덮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경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IT를 제외한 산업에서는 투자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용에 대한 보수적인 계획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실업률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연준은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으며 이런 시각은 전망치의 변화로 반영하고 있다.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를 전제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이상에서 유지되고 실업률은 4% 내외에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장기 목표금리를 2.6%로 소폭 높였다는 점은 최근 이어지는 노동생산성의 개선이나 구조적인 변화 등에 따른 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전과 같은 저금리 상황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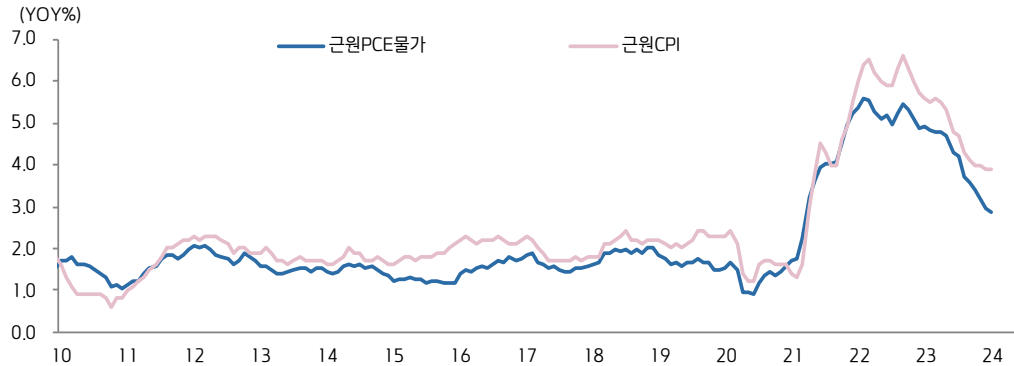
그렇다면 어느정도 물가가 통제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그 안에서 경기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연준은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근원 PCE 물가는 현재의 상승 속도와 기저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이지만 2%대 초중반대로 2분기 중에는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물가 둔화세를 바탕으로 연준은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IT 재고순환과 IT 제외 비국방핵심자본재 재고순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근원PCE물가와 근원CPI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 달러화, 완만한 약세 흐름 이후 하반기 후반 소폭의 반등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6월에 시작된다면 금리 인하 전후로 달러는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물가지표들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불확실성이 수시로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근원 PCE 물가의 둔화세가 지속된다면 연준의 예방적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금리 인하 사이클 당시의 미 달러화는 상황에 따라 움직임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 연착륙으로 이어지며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던 1995년의 사례를 고려해보면 금리 인하 전에는 그 기대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이후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다 반등하는 패턴을 보인바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양호한 만큼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과 펀더멘털과 통화정책 측면에서 주요국과의 차별화가 다시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미국 경기가 연착륙하고 금리 인하의 강도가 강하지 않다고 본다면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지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이에 올해 미 달러화는 약세 흐름을 금리 인하 전후로 이어가다 4 분기에는 그 흐름이 제한될 수 있으며 미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폭의 반등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본다.

주식시장 영향

Strategist/Marke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시장 친화적이었던 3월 FOMC, 기대되는 4월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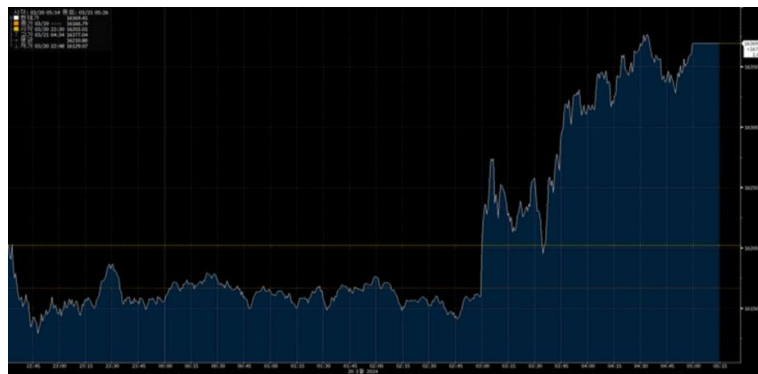
지난 1~2월 연속으로 인플레이션 쇼크를 맞아왔던 터라, 3월 FOMC 전부터 시장은 연준의 점도표 상향 등으로 연내 금리인하 강도를 축소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왔다. 이는 3월 중 수시로 시장이 숨고르기성 조정을 겪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이 같은 우려와 달리 3월 FOMC는 시장 친화적인 결과로 끝이 났다. 모두의 이목을 집중 시켰던 점도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3월 FOMC에서 공개된 올해 '24년 점도표 상 중간값 전망치는 4.625%로 지난 12월과 동일한 수치로 제시되면서, 연내 3회 인하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

'24년 성장률(1.4% → 2.1%), 실업률(4.0% → 4.1%), 근원 PCE(2.4% → 2.6%) 등 경제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기는 했다. “경기 호조 = 금리인하 명분 약화”라는 논리 구조를 생성시킬 수 있는 요소이지만,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 시그널은 짙어지고 있기에 연준은 보험성 형태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경기 하드랜딩이 아닌 소프트랜딩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파월 의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양적긴축을 축소 적절”, “고용이 강하다고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 것” 등의 언급으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였다는 점도 주식시장이 안도했던 부분이다. 이로 인해 20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FOMC를 기점으로 동반 강세를 연출한 채로 마감했고(다우 +1.0%, S&P500 +0.9%, 나스닥 +1.3%), 비트코인도 6만 7000 달러대를 회복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다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이다.

21일(한국시간 새벽) 3월 FOMC 결과 발표 전후의 일중 미국 나스닥 주가 흐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당사는 상반기 금리인하 전체가 훼손되지 않으면 2분기 주식시장은 중립 이상의 우호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사실상 이번 3월 FOMC가 상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메인 변수였다는 점을 감안 시, 당사의 전망은 유효하며 당분간 증시 환경은 긍정적인 전망이다(CME Fed Watch 상 6월 금리인하 확률은 FOMC 전 55.6%대에서 FOMC 이후 70.8%대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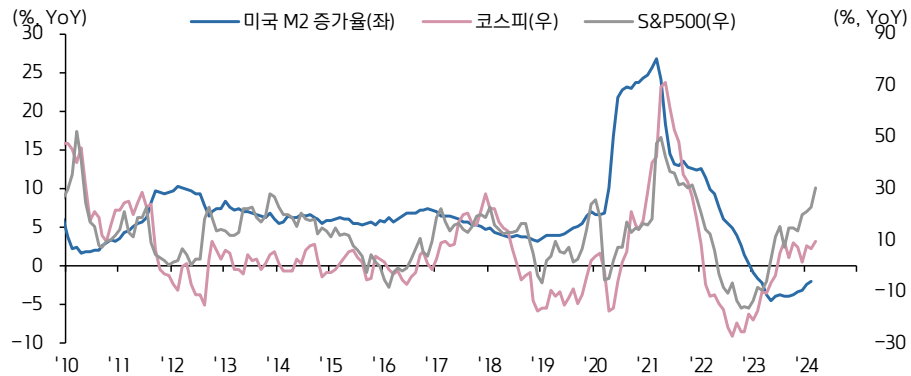
물론 인플레이션 노이즈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에, 증시가 오르는 과정에서 순탄치 않은 상황이 간헐적으로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19일 BofA의 서베이에서도 향후 시장에 잠재적인 위협 요인 1순위가 인플레이션(32%)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나, 4월 중 발표 예정인 3월 CPI가 잘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3월 헤드라인 CPI 3.37%, 코어 CPI 3.73%가 컨센).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2% 목표치로 돌아간다는 강한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비포장도로라는 표현을 섞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노이즈에 불과하다. 최근 미국의 소매판매 부진, 소비심리 취약 등 고용시장을 제외한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이 노랜딩->소프트 랜딩으로 이동하고 있기에, 디스인플레이션의 확산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증시 자체적으로 봐도 이제 남은 3월이 지나고 나면 4월부터는 본격적인 1분기 실적시즌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할 부분이다. 최근 엔비디아가 20% 이상 포함된 AI 반도체 중심의 ETF 등에서 자금 유출입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1~3월 AI가 주도해왔던 시장 색깔이 어느정도 바뀔 소지가 있다. 하지만, 20일 삼성전자가 이날 하루에 주가가 5%대 폭등했다는 점이나, 1~3월 수출 데이터 상으로 반도체 중심의 수출 모멘텀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20일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이 전방 산업 회복 효과로 인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간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 의견을 뒷받침한다.

이는 AI 주들이 밸류에이션 단기 부담, 엔비디아 GTC 이벤트 이후 신규 호재성 재료 부재 등으로 숨고르기 장세를 겪더라도, 전통 메모리 반도체 포함 전반적인 IT 주들의 모멘텀이 1분기 실적시즌을 치르는 과정에서 증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월 10일에는 총선도 예정이 되어 있다. 통상 국내 정치 이벤트는 국내 증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은행, 자동차를 중심으로한 저 PBR 주들에도 재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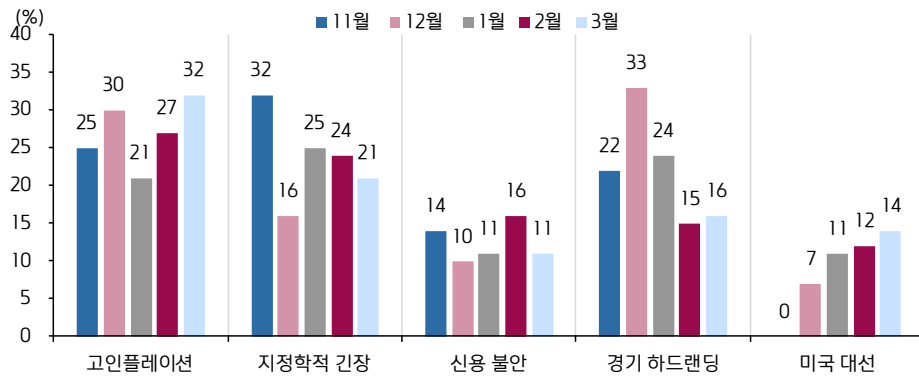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4월 중 3월 CPI 전후로 인플레이션 노이즈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겠으나, “6월 금리인하 유효 + 1분기 실적시즌 기대감+ 외국인 바이코리아”이라는 조합이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시키면서 반도체와 저 PBR 주간 긍정적인 순환매 장세를 만들어 낼 것으로 판단.

미국의 유동성 증가율은 바닥 치고 반등 추세, 이 추세가 변하지 않는 한 증시 유동성 환경은 중립 이상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4월에도 주식시장에 단기 불안요소를 주입시킬 있는 것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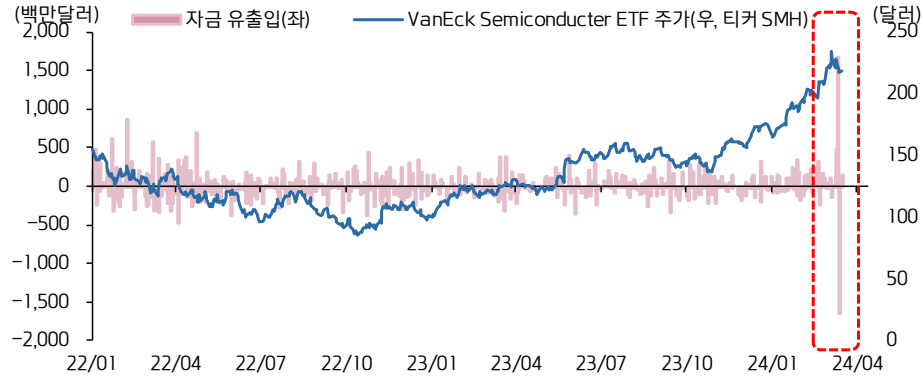
자료: BofA Global Fund manager Survey(24.03.19),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탈동조화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와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미국 소프트랜딩이 베이스 경로인 만큼 향후 수요부진에서 기인한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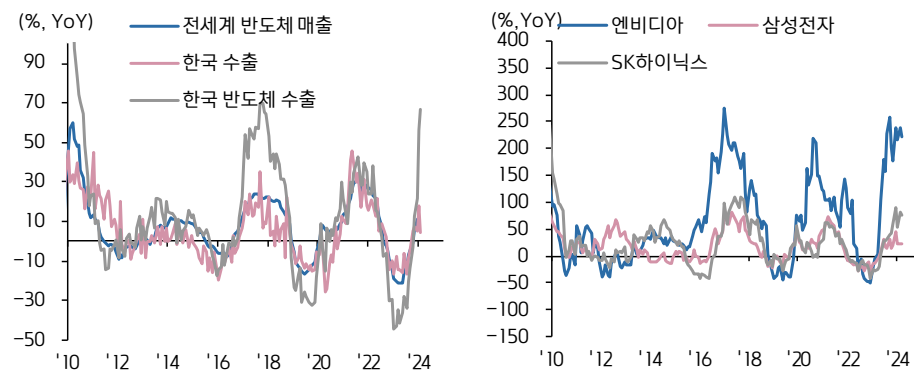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단기적인 시장 색깔 바뀔 가능성, 미국 반도체 ETF(SMG)의 일간 자금 유출입 추이, 지난주 이후 자금 유출입 변동성 증폭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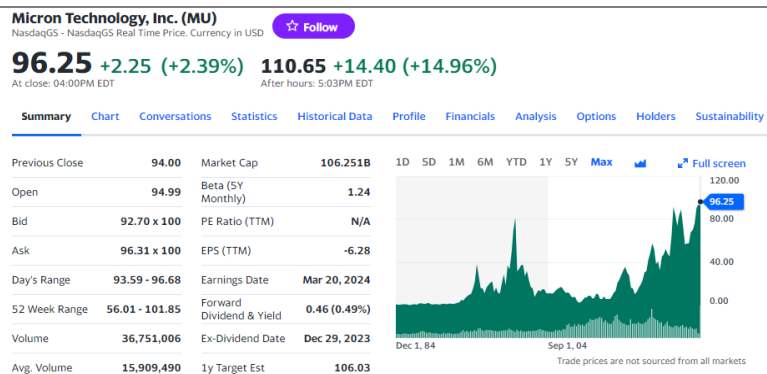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전세계 반도체 이익 사이클 전개 중, 반도체 주들간 키 맞추기 장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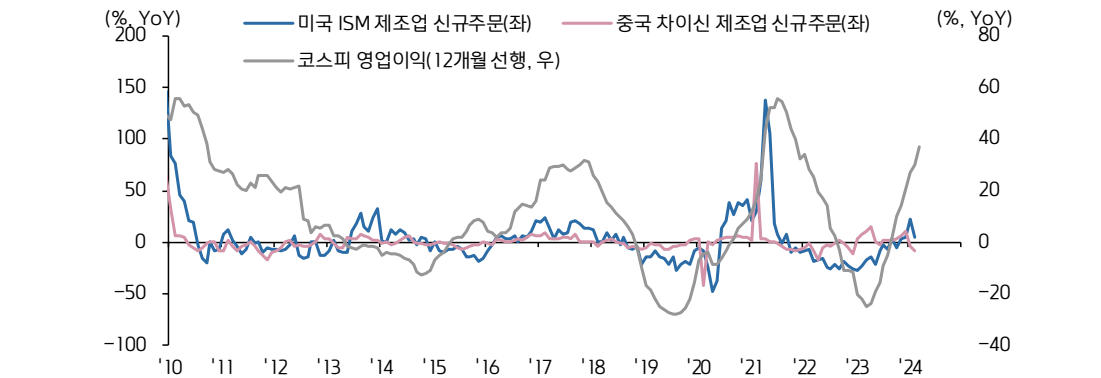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0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어닝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시간외 주가 폭등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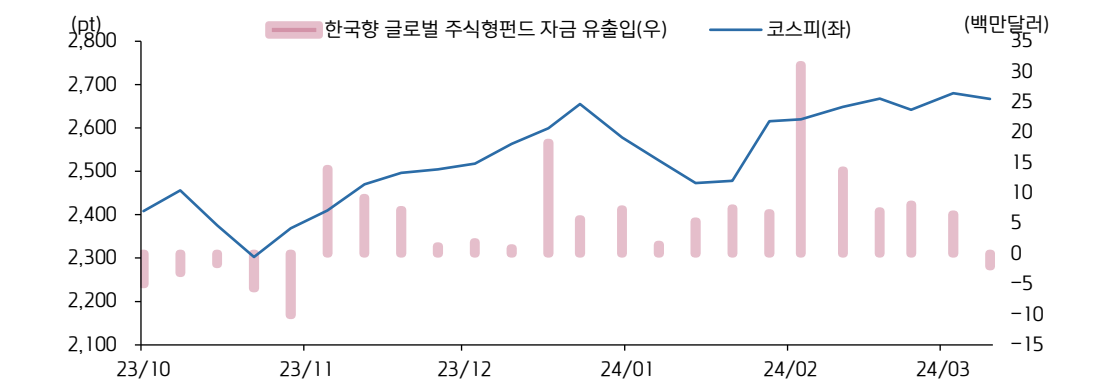
자료: 야후 파이낸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과 중국의 경기는 우려보다 양호할 것, 1분기 한국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식형 펀드들의 한국 증시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연도별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추이



자료: Quantwis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